제 15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개항기 항구도시 부산의 변화와 일본인
강연자: 강성우 (옥스퍼드 대학 동양학 박사)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한 강성우 박사의 세미나가 5월 21일 화요일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개항기 항구도시 부산의 변화와 일본인'이라는 주제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동아시아를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게 되었다고 운을 뗀 강성우 박사는 유학 시절 외국인 은사 중에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팽창했을 무렵 각 자국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많으며 이 시기 역사에 대한 기술도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개항기 시기의 부산은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을 정도로 왜색이 짙은 도시였다고 한다. 식민지를 근대화로 보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도시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연구자들은 식민지 시기의 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식민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재조(선)일본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도 거류인 연구를 많이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지역을 어째서 부산으로 설정하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부산은 개항기 이전에 이미 대마도 사람들이 한국인과 교류를 하였고, 또한 이주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개항기 이전과 이후의 부산을 살펴보는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한다. 덧붙여, 부산이 경험한 개항이 일본인의 헤게모니를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다시 한국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하였다.

강성우 박사는 개항기 시기 부산을 보는 3가지 시각이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서 "부산이라 하면 조선의 항구로는 첫손꼽을 데요... 부산만 와봐도 조선을 알만하다"라고 언급된 것처럼 부산에는 일본인 많고, 일본 헌병 많아서 무섭지만 조선의 항구로서 의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잘 꾸며진 일본 도시 같다"고 이야기한 이사벨라 비숍(Isabella L. Bird Bishop)의 말처럼 그 당시 부산에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외국인들은 일본인인 것 같다고 한 그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카타 킨죠 (中田錦城)가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소를 '나가사키현 부산정(長崎県 釜山町)'이라고 작성해서 부친 것처럼 부산을 일본의 식민지인 양 다루는 시각이 존재했다고 한다.

지도를 보면서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하였을 때, 빠르게 일본인 거류지가 확장되어 감을 알 수 있다고 강성우 박사는 설명했다. 이어서 부산 내 일본인 증가 현상에 대해서 1876년 부산으로 이민 온 일본인 수가 82명이었던 것에 반해 1880년 2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임오군란 등의 사건으로 1882부터 1884년까지는 그 수가 감소하였으나 다시 1885년부터 1894년 동안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정기운항 항로 개척해서 이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일본인 거류지 확보는 일본인 수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1895년 중일전쟁의 끝으로 조선이 일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자, 더불어 일본인 이민 수는 다시금 증가하게 된다. 이때부터 부산을 나가사키현 부산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 영향력 더 커지자, 조선 내 거류하는 일본인은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이 시기 중요한 점은 이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부산으로의 이민을 권장하였으나, 러일전쟁 이후에는 식민지를 가진 제국주의자의 입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부산에는 수도확장 공사를 포함한 대규모의 공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단지 부산이 좋은 땅이라서 이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메이지 시대의 정책이었다. 직업의 선택, 토지의 판매와 매입의 자유 확보 등을 통해 일본 내에서의 이주도 많아지고, 해외로의 이주도 많아지게 되는 시기였다. 부산은 식민지 시기의 Gate Way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의 이민의 동기를 살펴보면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근, 홍수, 가난 등을 꼽을 수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자발적인 동기와 기회가 있었다. 산업화가 도시이주를 이끌었고 그리고 메이지 정부가 정책으로써 1890년대 해외 이주 장려하였던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위해 조선으로의 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강 박사는 강조했다. 일본인이 조선으로 많이 이주한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을 꼽을 수 있고, 초기 이민자들의 정보가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지 등의 유사성으로 정착의 용이성이 있었다고 한다. 부산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부산으로 이주해왔고, 대부분의 한국인 상인들이 부산일본인 상인들에게 종속 당하였다고 설명했다.

강성우 박사는 개항기 변화와 일본인에 관한 연구가 식민지 근대에 대한 문제에 긍정적인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일본인과 한국인의 권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질의응답

질문: 당시 부산에 거류했던 일본인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그 성격의 변화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역학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두 번째로, 부산의 변화를 이야기하실 때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부산포 전체가 커진 것인지, 이에 따른 행정적 변화는 어떠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답변: 거류민의 성격의 변화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 다만, 1905년 이후 식민지적 성격이 드러났던 것은 확실하다. Settler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류민들은 식민, 혹은 이민의 성격을 둘 다 가졌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민에서 식민으로 옮겨졌는지는 확실히 단정짓기 힘들다. 부산은 1905년 이전에 이미 식민지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 같다. 외국인들이 써놓은 기록들을 보아도 대부분의 경우, 부산은 일본인의 도시였다라는 문헌들이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부산에서 일본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했고 풀뿌리 식민 통치를 이미 그 공간 안에서는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래구가 부산 행정의 중심이었고, 외간 지역은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역을 허용한 지역이라 어촌같이 낙후되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 드리고 싶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간을 중심으로 확장되었고 항구하고 가까웠던 외간 때문에 바다를 매워 영토를 넓히는 작업도 하였다. 사실 현재는 부산 남포동이 중심인데 이는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도시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